

‘5월 광주의 기억’...동시대 예술 언어로 재구성

리아트센터 특별기획전 ‘46 / 518’...오는 30일까지

정영창, 임택준, 신도원, ‘인간 존재와 기억’ 공통된 질문 공유
오는 18일 아트토크...행위예술·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도

억압과 폭력, 저항과 인간 존엄의 문제는 특정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오월을 맞이해 ‘기억’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감각,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구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30일까지 리아트센터(동구 서석로88번길 20-11층)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 ‘46 / 518’이다.

‘46 / 518’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기획된 주제다. ‘46’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전시는 광주의 기억을 동시대 예술 언어로 재구성한 독립 기획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전시를 기획한 남궁운 예술감독은 “역사와 인간, 기억과 감각의 문제를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며, 예술이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감각과 질문을 드러내는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시에는 정영창·임택준·신도원 3명

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조형 언어와 작업 방식을 지니고 있지만 인간 존재와 기억, 그리고 현재의 감각에 대한 공통된 질문을 공유하고 있다.

정영창 작가는 ‘뭉’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존재와 삶의 본질, 그리고 서로 연결된 시간 속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잊혀진 얼굴과 기억들을 현재로 다시 불러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5·18의 기억 속 인물인 김향득, 안성례의 얼굴을 먹 작업으로 담아내며 잊혀진 기억과 인간의 시간을 현재로 다시 불러낸다.

임택준 작가는 회화·설치·퍼포먼스를 넘나들며 몸과 감각, 존재의 상태를 탐구한다.

‘Painful Memories’ 연작을 통해 기억의 흔적과 감정의 잔상을 드러내며,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시간을 현재의 감각으로 환기시킨다. 캔버스 위 겹겹이 쌓인 흔적과 선, 굵직한 표면들은 인간 내면의 감정과 기억의 층위를 드러내며 고통



신도원작 ‘자유평화정원’

과 치유 사이의 감각을 시각화한다.

신도원 작가는 붉은 빛과 물, 식물, 인간의 실루엣이 교차하는 공간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자연의 파괴와 인간의 존엄, 역사적 기억이 충돌하는 감각적 환경을 구현하며 붉은 공간을 통해 생명과 상처, 폭력과 침묵이 공존하는 기억의 풍경을 드러낸다. 또 미디어 설치와 드로잉, 퍼포먼스를 결합해 관객이 직접 공간 안으로 들어와 기억과 감각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다. 중앙초 학생들과 함께 아트토크를 개최해 5·18의 기억과 현재적 의미, 예술을 통한 기억의 방식, 인간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학생·작가들이 함께 대형 광목 위에 드로잉 작업을 진행하며 기억과 감정을 하나의 집단적 이미지로 확장시킬 예정이다.

이후 완성된 작업은 같은 날 오후 5시18분 5·18 민주광장 상무관 앞으로 이동된 뒤 세 명 작가의 행위예술과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정영창작 ‘뭉경1’(왼쪽)과 ‘뭉경2’



임택준작 ‘Painful Memories’

남궁운 예술감독은 “이번 전시는 기억을 단순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전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감각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예술적 시도”라며 “자신의 삶과 시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경험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민주·인권·평화’...전국오월창작가요제 열린다

23일 5·18민주광장서 본선 경연

오월정신의 가치를 동시대 음악 언어로 풀어내는 제16회 전국오월창작가요제가 오는 23일 오후 7시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본선 경연을 펼친다.

‘46오월음악이 주최·주관하는 전국오월창작가요제는 2010년 5·18민중항쟁 30주년을 기념해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음악으로 계승하고자 시작된 행사다. 이후 광주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음악행사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가요제에는 총 149곡이 접수됐으며 참가신청서와 연주 영상, 음원 등을 바탕으로 4명의 심사위원이 1차 예선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 12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본선에서는 다양한 시선과 메시지를 담은 창작곡들이 관객과 만난다.

문소문은 시대에 필요한 목소리를 음악적 서사로 풀어낸 ‘영원히 짓는 개’를 선보이며, 김석준밴드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오월을 회상



지난해 열린 전국오월창작가요제 모습.

한 ‘May May’를 들려준다.

직시는 버려진 이쑤시개를 소재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이쑤시개’를, 답답은 지난간 상처를 ‘굳은살’로 표현한 곡을 무대에 올린다. 여운은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소년의 노래’를 선보인다.

최고은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이별 풍경을 담은 ‘송가’를, 송희태는 존재와 쓰임에 대한 질문을 담은 ‘쓸모’를 발표한다. 심각한 개구리는 어둠 속에서도 삶의 불을 밝혀줬다는 메시지를 담은 ‘불을 밝혀라’를 선보인다.

이혜원은 46년 전의 송고한 저항 정신을 기리는 ‘다짐’을, 오터스는 1970-1980년대 임동 방직공장 여공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직공장’을 무대에 올린다. 릴 리버브로스는 ‘새날을 기다리는 임의 노래’를, 주태준은 그리움과 뒤늦게 깨달은 사랑을 녹여낸 ‘그대는 나의’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지난해 대상 수상팀인 예람의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최명진 기자

다시, 오월의 빛으로 피어나다

31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굿즈전시

‘공예로 만나는 광주5·18의 기억’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은 오는 31일까지 재단 1층 북카페 은세암에서 광주 오월을 기념하기 위한 굿즈 전시 ‘다시, 오월의 빛으로 피어나다’를 개최한다. (사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지역 공예 작가들이 협업한 ‘오월의 빛 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이는 기획전이다. 해당 프로젝트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도자, 섬유, 금속, 목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 15명이 참여해 총 50여점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지역 공방 기반의 디자인을 통해 오월의 기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전시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삶과 연결된 가치로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오월 유족들이 간직해 온 기억은 작가들의 해석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로 구현돼 민주·인권·연대



의 가치를 담은 상징적 오브제로 제시된다.

오월광주에 대한 발자취와 기억은 활자를 새기는 펜과 노트로, 향기를 뿜어내는 향초로, 옷매무새를 장식하는 브로치로 각각 형상화돼 전시됐다.

이와 함께 전시 연계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참여 작가가 진행하는 공예 체험이 운영된다. 시민은 제작 과정을 경험하며 작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